

# 전남 김 양식장 황백화 현상...어가 비상

### 여름 내내 지속된 고수온 현상이 영향 미쳐 국립수산과학원 “채묘 늦춰 달라” 권고

전남지역 김 양식장에 성장이 더디고 색깔이 누렇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가에 비상이 걸렸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진도, 해남, 고흥, 완도, 신안 등 김을 생

산하는 연안 시·군에 공문을 보내 수온이나 영양 염류 농도에 맞춰 김 채묘(종자 불이기) 시기를 조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수산과학원도 황백화 피해를 우려해 채묘를 늦출 것을 권고했다.

고흥 해역을 중심으로 황백화 조짐이 나타났다. 황백화는 바닷물에 산소나 영양 염류가 부족할 때 김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으로 통상 수온이 올라가는 3월 이후 주로 나타나지만, 재작년부터는 9월부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현재 수온은 채묘에 적합한 22도 이하로 내려갔으나 여름 내내 지속된 고수온 현상이 영향을 미쳤

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산당국은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진도 등 채묘를 마친 일부 양식 어장에서는 이미 황백화 피해가 발생해 올해 김 작황을 망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남에서는 황백화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2016년 산) 물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지난 겨울과 봄에는 충남과 전북 등

에서 황백화가 폭넓게 발생했지만, 전남 해안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 전남은 전국 김 생산량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는 주산지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지, 지속할지는 바다 상황을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빨리 생산하고 싶은 어민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50~60일이면 생산이 가능한 만큼 채묘를 다소 늦추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정근수 기자



### 일자리 등 노인복지 정책 추진

광주시가 종전 수동적 돌봄에 머물렀던 노인복지를 일자리 제공 등 ‘능동적 복지’로 전환하고, 일자리와 돌봄, 여가 지원을 토대로 한 복지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는 2일 제22회 노인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 7기 노인복지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비전은 ‘수동적 돌봄’에서 ‘능동적 복지’로의 정책프레임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시는 시장형·공익형·인력파견형 등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발굴해 현재 1만5,000여명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을 민선 7기 내에 연 3만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보살핌을 드리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후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

### “미래위해 현대차투자 유치해야” 광주 직업계고 교장들 성명서 발표

난관에 봉착한 광주형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교사들까지 나섰다. 광주 직업계고 교장 13명은 2일 성명을 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현대차 광주투자 유치를 기원했다. 이들은 “현대차 투자유치 사업은 지역에 일할 곳이 없어 타지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며 “갓 성인이 된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싫다”고 호소했다. 또 “광주에 현대차 위탁물량을 생산

하는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부품공장 등 관련업체와 직업교육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성명에는 광주자연과학고·광주공고·전남공고·광주자동차설비공고·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광주전자공고·송의고·금파공고·동일미래과학고·광주여상고·전남여상고·송원여상고·서진여고가 참여했다. /고광민 기자



청색경제 원년의 해 선포식 2018 국제청색경제포럼 개막식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박찬규 환경부 차관,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최영조 경북 경산시 장, 제이 하먼 호주 해양야생국 동식물연구가 등 참석자들이 ‘청색경제 원년의 해 선포식’을 하고 있다.

### 나주 금성관·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전남도 10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

전라남도도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10월 추천관광지로 전년 전라도의 중심지인 나주 금성관과 비취색 신비한 고려청자의 산실인 강진 고려청자 박물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8년은 ‘전라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 딱 1천년이 되는 해다. 고려 현종 9년(1018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치고 가장 큰 고을이던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 전라도라 부른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주목의 중심이었던 금성관은 조선시대 객사(관청 건물)로서 고을 수령과 관리들이 모여 왕에게 충성을 바치던 곳이다. 중앙 관리들이 지방 출장

시 목았던 곳이기도 하다. 나주목을 다스렸던 360여명이 넘는 목사(현재의 도지사)의 살림집인 목사나이는 ‘ㄷ’자 형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내아이다. 강진 고려청자 박물관의 전신에서는 고려청자의 생산과 유통, 소비, 변천 과정을, 야외전시장에는 강진의 청자요지 중 발굴 조사된 용운리와 사당리 요지를 보존해놓아 고려청자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박우욱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천 년을 넘어 2천 년의 이야기가 가득한 전남에서 소중한 역사·문화를 알아보면서 전남의 역사·문화와 가을을 산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 광주 김치 세계화·관광상품화 추진

#### 이 시장 간부회의서 주문 “마케팅 지원정책 필요”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세계김치축제 활성화를 통한 김치의 세계화와 관광상품화 추진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화요간부회의에서 “광주만의 독특함을 발굴해서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할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면서 “세계김치축제 활성화 방안과 광주 김치의 세계화·관광상품화 방안을 강구해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맛있고 위생적인 김치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무궁무진하며 광주는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김치

는 미향 광주의 가장 대표적 음식으로, 배추·염장 등 양질의 원·부재료와 솜씨 좋은 김치명인 등 좋은 김치 생산을 위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광주 김치를 세계화·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부족했다”며 “김치축제는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가 보이지 않고, 개최지로서 김치타운의 시설과 접근성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광주에 있는 16개 김치제조업체는 영세한 규모와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주 김치의 성공적인 상품화와 산업화를 위해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제품홍보·판로확대 등 마케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남구 김치타운 일원에서 열리는 올해 세계김치축제부터는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콘텐츠와 시설 등을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수 기자

### 국내외 모빌리티 전문가 한자리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 세계적 기업인 캐나다의 엘리먼트 AI(Element AI)의 드니 테리엔(Denis Therien) 부사장을 비롯한 국내외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드니 테리엔 부사장은 오는 11일 영광 대마산업단지에서 열리는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막식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엘리먼트 AI의 선택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드니 테리엔 박사는 엘리먼트 AI에서 리서치 파트너십 담당 중역으로 재직하고 있다. 캐나다 명문 맥길 대학에서 40년 동안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학장을 역임했다. 엘리먼트 AI는 안 르륄, 제프리 힌튼과 함께 현재 AI 분야 3대 구루(Guru·뛰어난 스승)로 통하는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가 201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 창업한 스타트업기업이다.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스마트 e-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 사례 발표, 혁신창업 관련 특별강연등으로 구성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차세대 혁신성장 포럼’과 스페인 IDIADA, 미국 MGA 등 국내외 인증기관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미래 e-모빌리티 산업 트렌드 공유 세미나’가 11일 오후 3시부터 열린다. /최진화 기자